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76호 【루게 제 24489호】 주제 103 (2014)년 3월 17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  
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 밑에 당중앙군사  
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  
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  
위원회 확대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과 조선인민군 당위원회  
집행위원들, 군중, 군단  
급 단위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 지난해 인민군  
대의 사업을 분석총화  
하시고 올해 인민군대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력  
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천만군민이 승리의 신  
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  
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  
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  
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  
인 시기에 진행된 당중  
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  
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  
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안전과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군에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인민군대의 싸  
움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  
고 군인생활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문제들과 나라의 방위력  
을 튼튼히 다지는데서 나서는 중대  
한 문제들이 토의결정되었다.

회의에서는 조직문제가 토의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는데  
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본사정치모도반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최룡해 동지, 리영길 동지, 장정남 동지, 김원홍 동지, 최부일 동지, 한광상 동지, 김경욱 동지, 황병서 동지, 홍영철 동지, 마원춘 동지, 김여정 동지가 공연을 함께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한 자리에 모시고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아, 녀성중창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녀성4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 녀성중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종목들이 울랐다.

출연자들은 불철주야의 현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사회주의조국수호와 부강조국건설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최고사령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산대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 하였습니다.

관객들은 《만세!》의 공연무대에는 녀성중창 《인민의

회》, 녀성독창 《희망넘친 나의 아버지》, 녀성독창과 방창 《바다 만

풍가》, 녀성3중창 《귀향의 노래》, 녀성독창과 방창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

기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3 면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2 면 에 서 계 속

출연자들은 또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선군조선의 앞길은 언제나 밝고 휘황찬란하며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일대 번영기를 열어 나가는 천만군민의 앞길을 막을자

세상에 없다는것을 힘있게 과시 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헌신과 로고의 세계를 가슴마다에 새겨주고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신뢰심과 한없는 그리움, 불타는 충정의 마음

을 감명깊게 보여준 공연은 장내를 뜨겁게 달구었다.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참신하면서도 활력있고 독특하면서도 황홀한 음악세계를 펼치는 예술인들과 곡조에 맞추어 박수를 터쳐올리는 관람자들의 열정적인 교감으로 하여 무대와 객석은 하나로 뭉쳐 버니었다.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 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과 출연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

성가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예술창조와 공연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의 사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 성원들의 사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인민군 당 위원회 집행위원들을 비롯한 인민군지휘 성원들이 경기를 보았다.

군사지휘관조와 정치일군조로 나뉘어 진행된 사격경기는 권총과 자동보총으로 제정된 거리와 시간에 목표를 쏘아 맞힌 점수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었다.

권총사격경기에서는 군사지휘관조가, 자동 보총사격경기에서는 정치일군조가 우승 하였으며 종합우승은 군사지휘관조가 쟁취하였다.

사격경기에 대한 총화와 평가가 진행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명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군인들을 일기, 주야, 계절조건에 관계 없이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나타나는 목표들을 단방에 어김없이 소멸하는



한다고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고 싸움준비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가함으로써 당이 맡겨 준 무겁고도 영예로운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긴 인민군지휘성원들은 일단 명령이 내리면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승냥이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치를 떤 천만장병들이 이끌고 자비를 모르는 백두산총대로 원수들을 사정을 보지 않고 모조리 축탕쳐버릴 멸적의 일념으로 심장을 끓이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백발백중의 명사수들로 키우자면 지휘 성원들부터가 명사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의 사격 경기를 조직한 당의 의도를 명심 하고 당의 5대훈련방침과 4대훈련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훈련장마다에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오늘 진행된 경기

가 모든 군인들을 명사수들로 키우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과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싸움은 언제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최룡해동지, 리영길동지, 장정남동지, 김원홍동지, 최부일동지, 한광상동지, 김경욱동지, 황병서동지, 홍영철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조선인민군 항공군대장 리병철동지와 군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을 기다리는 비행사들의 가슴마다에는 날강도 미제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섬멸의 불벼락을 들뜨우고 가증스러운 원수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깡그리 짓밟게 버릴 멸적의 의지와 기상이 용암마냥 끓어번지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행훈련을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리륙하는 비행기들의 폭음소리가



신성한 병공을 금성철벽으로 지켜가고 있는 미더운 비행사들이 있기에 조국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를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행훈련을 강화하여 비행사들을 현대전에 능숙히 대처할수 있는 하늘의 결사대,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더욱 억세계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비행사들이 경사적인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의 전체 군인들은 부대에 찾아오시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울 안겨주시신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한몸이 그대로 성새, 방패가 되어 천만군민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사회주의 조국의 하늘을 철벽으로 지켜갈 충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천지를 뒤흔들고 강렬한 폭풍이 세차게 몰아쳤다.

급상승하며 아득히 사라졌다가 《적》진에로 벼락같이 급강하하는 비행대들은 명령이 내리면 백두산번개처럼 적진을 즉락치고 정일봉우리처럼 원수들의 아성을 송두리채 뒤흔들어놓고야말 용감한 매들의 전투적기상을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행사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전투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영용한 비행사들은 조국의 하늘가에 비행운을 새기며 과감하고 가슴 후련한 전투행동으로 비행훈련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훈련은 적들과의 대결은 사상과

신념의 대결, 담력과 배짱의 대결이라고 하시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였기에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제공권은 우리 붉은 매들의것이 라는것을 다시금 힘있게 떨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훈련이 잘되었다고 하시면서 한몸이 그대로 육란이 되어 사회주의 조국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한몸이 그대로 성새, 방패가 되어 천만군민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사회주의 조국의 하늘을 철벽으로 지켜갈 충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2돐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어온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태인 세인 만마편방공화국 대통령, 바사르 알 아싸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요베리 카구타 무세베니 우간다 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답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따뜻한

한 축전을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며 나라의 진보와 번영을 위한 그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시였다.

본사기자

## 태양절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태양절경축 오스트리아준비위원회가 2월 24일 빈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 위원장 에두아르트 크나프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다양한 정치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태양절경축 폴스카준비위원회가 11일 와르샤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폴스카조 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스와보이 야누아리 구즈스키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명도의 위대성과 생활된 널리 소개선전함으로써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김일성대원수탄생 102돐경축 배닌사회주의당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0일 꼬포누에서 진행되였다. 위원장 알리 후두는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이 해방된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수많은 나라 국가수반들, 저명한 인사들을 만나주시였다.

외국의 각계 인사들이 주석을 그토록 열렬히 칭송하는것은 그이께서 위대한 사상과 령도력뿐아니라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고매한 품모를 지니고계시였기때문이다.

김일성주석의 자애로운 영상은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어있을것이다.

부위원장 아그바혼조 주스맹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48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수심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나라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공화국은 창건된 지 2년도 안되어 일어난 조선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또한 전투 제대미우에서 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한데 이어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도 성과적으로 다그쳤다.

불매의 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는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알리 후두가, 서기장으로 아그바혼조 주스맹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입장을 똑바로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 정세파국을 몰아오는 북침합동군사연습

보도된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자주적핵억제력을 《위협》으로 결코 들며 감행하고있는 반공화국제와 고립압살책, 날로 엄중해지고있는 군사적대행위와 《인권》모략책은 수수방관할수 없는 극도의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 더우기 참수수 없는것은 미국이 자기 명도자, 자기 사상과 제도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가장 신성한 충정이 깃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인신거를 《민주주의가 못된다.》고 함부로 시비질하는 정치적도발을 감행한것이다. 얼마전 우리 공화국을 《악의 나라》, 《사악한 곳》이라고 헐뜯고 조국을 반역한 인간쓰레기들을 《영웅》이라고 추어주며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광분한 미국이 이제 우리의 선거제도가 지킬것이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해치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을 과연 어떻게 보고만 있을수 있는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지금 도발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이어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위업을 해치고있다.

우리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에 사로잡힌 미국이 해례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함께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해나선것을 어떻게 마련된 북침합동군사연습의 분위기가 파괴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얼마전 미국은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에 핵추진잠수함 《플러부스》와 화 7함대 기함 《블루릿지》호를 투입한데 이어 이즈소우드미사일구축함 《커티스 윌버》호, 이지스구축함 《리틀》호, 미사일순양함 《레이크 에리》호, 이지스구축함 《프랜시스》호를 동시내 끌어들이었다. 또한 3월달부터 10일경에 걸쳐 경상북도 포항일대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을 벌이며 4월초부터는 연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 쉐더》

연습을 벌일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인론들은 연합상륙훈련에 연합공중전투훈련이 이어지면서 야외기 동훈련인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그로 하여 북침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평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북침합동군사연습이 매우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성격을 띠면서 북침합동군사연습의 분위기를 심히 흐려놓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올해에 들어와 북침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정의있는 노력에 의해 도발적 개전의 기회를 맞으면서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정화애호인민들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북침합동군사연습이 중지되기를 기대하고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북침합동군사연습이 미국의 도발적인 침략전쟁연습책동으로 말미암아 상서롭지 못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내외여론의 초점은 대세에 역행하는 위협천만만 북침합동군사연습에 쏠리고있다. 정세분석가들은 북과 남사이의 관계개선의 기운이 나타나고있는 지금의 정세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국통일 오만스러운 불장난소동을 벌일 필요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침합동군사연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하고있다. 결코 과연한것이 아니다.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말하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우리 공화국을 핵전제타격하기 위한 예비전쟁, 핵시현전쟁이다. 미국은 해마다 합동군사연습을 통하여 본토와 해외주민 특별공군 및 해병대부대를 조선반도에서 신속히 전개하여 남과 북과 함께 우리에 대한 위협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남조선당국과 함께 무어든 위협적인 《공중중지도발대비계획》과 《맞출형억제전략》을 적용하면서 그 실효성을 검증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그 무슨 《양어》를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명백한 공격연습이라는것을 명증해주고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에 핵추진잠수함 《플러부스》와 화 7함대 기함 《블루릿지》호를 투입한데 이어 이즈소우드미사일구축함 《커티스 윌버》호, 이지스구축함 《리틀》호, 미사일순양함 《레이크 에리》호, 이지스구축함 《프랜시스》호를 동시내 끌어들이었다. 또한 3월달부터 10일경에 걸쳐 경상북도 포항일대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을 벌이며 4월초부터는 연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 쉐더》

연습을 벌일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인론들은 연합상륙훈련에 연합공중전투훈련이 이어지면서 야외기 동훈련인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그로 하여 북침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평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북침합동군사연습이 매우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성격을 띠면서 북침합동군사연습의 분위기를 심히 흐려놓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올해에 들어와 북침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정의있는 노력에 의해 도발적 개전의 기회를 맞으면서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정화애호인민들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북침합동군사연습이 중지되기를 기대하고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북침합동군사연습이 미국의 도발적인 침략전쟁연습책동으로 말미암아 상서롭지 못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내외여론의 초점은 대세에 역행하는 위협천만만 북침합동군사연습에 쏠리고있다. 정세분석가들은 북과 남사이의 관계개선의 기운이 나타나고있는 지금의 정세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국통일 오만스러운 불장난소동을 벌일 필요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침합동군사연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하고있다. 결코 과연한것이 아니다.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말하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우리 공화국을 핵전제타격하기 위한 예비전쟁, 핵시현전쟁이다. 미국은 해마다 합동군사연습을 통하여 본토와 해외주민 특별공군 및 해병대부대를 조선반도에서 신속히 전개하여 남과 북과 함께 우리에 대한 위협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남조선당국과 함께 무어든 위협적인 《공중중지도발대비계획》과 《맞출형억제전략》을 적용하면서 그 실효성을 검증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그 무슨 《양어》를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명백한 공격연습이라는것을 명증해주고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에 핵추진잠수함 《플러부스》와 화 7함대 기함 《블루릿지》호를 투입한데 이어 이즈소우드미사일구축함 《커티스 윌버》호, 이지스구축함 《리틀》호, 미사일순양함 《레이크 에리》호, 이지스구축함 《프랜시스》호를 동시내 끌어들이었다. 또한 3월달부터 10일경에 걸쳐 경상북도 포항일대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을 벌이며 4월초부터는 연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 쉐더》

연습을 벌일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인론들은 연합상륙훈련에 연합공중전투훈련이 이어지면서 야외기 동훈련인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그로 하여 북침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평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북침합동군사연습이 매우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성격을 띠면서 북침합동군사연습의 분위기를 심히 흐려놓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올해에 들어와 북침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정의있는 노력에 의해 도발적 개전의 기회를 맞으면서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정화애호인민들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북침합동군사연습이 중지되기를 기대하고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북침합동군사연습이 미국의 도발적인 침략전쟁연습책동으로 말미암아 상서롭지 못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내외여론의 초점은 대세에 역행하는 위협천만만 북침합동군사연습에 쏠리고있다. 정세분석가들은 북과 남사이의 관계개선의 기운이 나타나고있는 지금의 정세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국통일 오만스러운 불장난소동을 벌일 필요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침합동군사연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하고있다. 결코 과연한것이 아니다.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말하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우리 공화국을 핵전제타격하기 위한 예비전쟁, 핵시현전쟁이다. 미국은 해마다 합동군사연습을 통하여 본토와 해외주민 특별공군 및 해병대부대를 조선반도에서 신속히 전개하여 남과 북과 함께 우리에 대한 위협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남조선당국과 함께 무어든 위협적인 《공중중지도발대비계획》과 《맞출형억제전략》을 적용하면서 그 실효성을 검증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그 무슨 《양어》를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명백한 공격연습이라는것을 명증해주고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에 핵추진잠수함 《플러부스》와 화 7함대 기함 《블루릿지》호를 투입한데 이어 이즈소우드미사일구축함 《커티스 윌버》호, 이지스구축함 《리틀》호, 미사일순양함 《레이크 에리》호, 이지스구축함 《프랜시스》호를 동시내 끌어들이었다. 또한 3월달부터 10일경에 걸쳐 경상북도 포항일대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을 벌이며 4월초부터는 연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 쉐더》

연습을 벌일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인론들은 연합상륙훈련에 연합공중전투훈련이 이어지면서 야외기 동훈련인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그로 하여 북침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평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북침합동군사연습이 매우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성격을 띠면서 북침합동군사연습의 분위기를 심히 흐려놓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올해에 들어와 북침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정의있는 노력에 의해 도발적 개전의 기회를 맞으면서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정화애호인민들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북침합동군사연습이 중지되기를 기대하고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북침합동군사연습이 미국의 도발적인 침략전쟁연습책동으로 말미암아 상서롭지 못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내외여론의 초점은 대세에 역행하는 위협천만만 북침합동군사연습에 쏠리고있다. 정세분석가들은 북과 남사이의 관계개선의 기운이 나타나고있는 지금의 정세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국통일 오만스러운 불장난소동을 벌일 필요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침합동군사연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하고있다. 결코 과연한것이 아니다.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말하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우리 공화국을 핵전제타격하기 위한 예비전쟁, 핵시현전쟁이다. 미국은 해마다 합동군사연습을 통하여 본토와 해외주민 특별공군 및 해병대부대를 조선반도에서 신속히 전개하여 남과 북과 함께 우리에 대한 위협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남조선당국과 함께 무어든 위협적인 《공중중지도발대비계획》과 《맞출형억제전략》을 적용하면서 그 실효성을 검증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그 무슨 《양어》를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명백한 공격연습이라는것을 명증해주고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에 핵추진잠수함 《플러부스》와 화 7함대 기함 《블루릿지》호를 투입한데 이어 이즈소우드미사일구축함 《커티스 윌버》호, 이지스구축함 《리틀》호, 미사일순양함 《레이크 에리》호, 이지스구축함 《프랜시스》호를 동시내 끌어들이었다. 또한 3월달부터 10일경에 걸쳐 경상북도 포항일대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을 벌이며 4월초부터는 연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 쉐더》

연습을 벌일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인론들은 연합상륙훈련에 연합공중전투훈련이 이어지면서 야외기 동훈련인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그로 하여 북침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평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북침합동군사연습이 매우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성격을 띠면서 북침합동군사연습의 분위기를 심히 흐려놓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올해에 들어와 북침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정의있는 노력에 의해 도발적 개전의 기회를 맞으면서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정화애호인민들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북침합동군사연습이 중지되기를 기대하고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북침합동군사연습이 미국의 도발적인 침략전쟁연습책동으로 말미암아 상서롭지 못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내외여론의 초점은 대세에 역행하는 위협천만만 북침합동군사연습에 쏠리고있다. 정세분석가들은 북과 남사이의 관계개선의 기운이 나타나고있는 지금의 정세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국통일 오만스러운 불장난소동을 벌일 필요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침합동군사연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하고있다. 결코 과연한것이 아니다.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말하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우리 공화국을 핵전제타격하기 위한 예비전쟁, 핵시현전쟁이다. 미국은 해마다 합동군사연습을 통하여 본토와 해외주민 특별공군 및 해병대부대를 조선반도에서 신속히 전개하여 남과 북과 함께 우리에 대한 위협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남조선당국과 함께 무어든 위협적인 《공중중지도발대비계획》과 《맞출형억제전략》을 적용하면서 그 실효성을 검증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그 무슨 《양어》를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명백한 공격연습이라는것을 명증해주고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에 핵추진잠수함 《플러부스》와 화 7함대 기함 《블루릿지》호를 투입한데 이어 이즈소우드미사일구축함 《커티스 윌버》호, 이지스구축함 《리틀》호, 미사일순양함 《레이크 에리》호, 이지스구축함 《프랜시스》호를 동시내 끌어들이었다. 또한 3월달부터 10일경에 걸쳐 경상북도 포항일대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을 벌이며 4월초부터는 연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 쉐더》

연습을 벌일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인론들은 연합상륙훈련에 연합공중전투훈련이 이어지면서 야외기 동훈련인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그로 하여 북침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평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북침합동군사연습이 매우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성격을 띠면서 북침합동군사연습의 분위기를 심히 흐려놓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올해에 들어와 북침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정의있는 노력에 의해 도발적 개전의 기회를 맞으면서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정화애호인민들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북침합동군사연습이 중지되기를 기대하고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북침합동군사연습이 미국의 도발적인 침략전쟁연습책동으로 말미암아 상서롭지 못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내외여론의 초점은 대세에 역행하는 위협천만만 북침합동군사연습에 쏠리고있다. 정세분석가들은 북과 남사이의 관계개선의 기운이 나타나고있는 지금의 정세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국통일 오만스러운 불장난소동을 벌일 필요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침합동군사연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하고있다. 결코 과연한것이 아니다.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말하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우리 공화국을 핵전제타격하기 위한 예비전쟁, 핵시현전쟁이다. 미국은 해마다 합동군사연습을 통하여 본토와 해외주민 특별공군 및 해병대부대를 조선반도에서 신속히 전개하여 남과 북과 함께 우리에 대한 위협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남조선당국과 함께 무어든 위협적인 《공중중지도발대비계획》과 《맞출형억제전략》을 적용하면서 그 실효성을 검증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그 무슨 《양어》를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명백한 공격연습이라는것을 명증해주고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에 핵추진잠수함 《플러부스》와 화 7함대 기함 《블루릿지》호를 투입한데 이어 이즈소우드미사일구축함 《커티스 윌버》호, 이지스구축함 《리틀》호, 미사일순양함 《레이크 에리》호, 이지스구축함 《프랜시스》호를 동시내 끌어들이었다. 또한 3월달부터 10일경에 걸쳐 경상북도 포항일대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을 벌이며 4월초부터는 연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 쉐더》

## 미국은 공화국을 감히 침공하지 못한다

###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의 글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이 11일 《미국은 왜 이북을 무력침공하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된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의 글을 실었다.

글은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같은 나라들을 무력침공한것처럼 우리의 길을 지향하는 나라들을 저들의 속속으로 만들고 있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이북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김일성 주석께서 김일성 국방위원장이 민족자주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나라의 강성병영과 후손민들의 행복을 담보하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기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은 제1위 원장께서는 김일성 주석께서 열렬히 애호하는 민족의 약속이 오늘에 당당히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수 없는 자주적인민들이 존

엄척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 있어 이념이적사변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선군혁명의 개척자시며 평등자시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과 김일성 국방위원장이신 안이오 신 력사의 필연이라고 하시

었다. 그분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김일성 주석께서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단위의 병영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시였으며 김일성 국방위원장은 이북의 혁명투쟁을 막강한 혁명강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으며 오늘에 민중의 주체적병영과 백성의 정령을 소유하고 이 전면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조선적의 공적공단과 방위수단들을 완비한 강군으로 자라

나갔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아로새겨온 백성의 력사가 있기에 주체조선의 영평소리를 100년사가 있는것이며 이북의 미래가 확고히 담보되어있는것이다.

글은 미국이 이북을 건드리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북이 명도자와 군인이 입실단결된 사회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음 이북에서 수령, 당, 군대와 민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체제로서 입실단결되어있고 군인이 입실되어있고 전진부창화와 전진공화국을 실현되고 물리적억제력을 다 준비하였기에 미국은 이북을 감히 침공하지 못한다.

미국과 이북은 속히 이북을 겨냥한 모든 군사정책을 중단하고 반공화국배타살포와 적대방상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포기해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통선언, 10.4선언이 밝혀준대로 우리 민족적 힘을 합쳐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권력세력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적이고 통일된 강성국가를 이루어 주기 위해 우리 겨레 모두가 단결하여 통일애국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 호전광들이 도발책동을 준렬히 단죄

미국이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발판으로 감행해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방해하고있는 지금 그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반발이 거세어지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을 난란을 조성하고있는 호전광들을 준렬히 단죄할것을 호소하고있다. 호전광들의 길을 뜻조각이 걸어야 할것을 표명하고있다.

남조선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우리 겨레 하나같이 운동분부가 열망하는 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단죄는 총회에서 최근 남조선당국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바라는 분위기를 표명하며 미국과 협력하여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데 대해 단죄하라는 외세의 군사협력강화가 조선반도평화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계속하여 단죄는 일련의 제부침화에도 우리를 급할수 없다고 결론을 표시하면서 그의 위협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소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8.15를 계기로 반일투

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할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남조선강성미제침략군의 철수와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구축책동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단죄는 호전광들의 전쟁연습을 반대하는 투쟁과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려나갈것을 결의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부산통일련대를 비롯하여 남조선의 많은 통일운동단체들이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의 방편이자 민족을 단결하고 우리 민족끼리 손을 맞잡고 나아가달라 6.15공통선언은 자주통일실현으로 꽃피게 될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필승의 심신을 안고 통일애국투쟁을 힘차게 벌릴것을 피력하였다.

이 단죄물결이 아니다. 로동운동단체, 종교단체성원들, 대학성원들 비롯한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고 있다. 호전광들의 길을 뜻조각이 걸어야 할것을 표명하고있다.

단죄는 총회에서 최근 남조선당국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바라는 분위기를 표명하며 미국과 협력하여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데 대해 단죄하라는 외세의 군사협력강화가 조선반도평화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계속하여 단죄는 일련의 제부침화에도 우리를 급할수 없다고 결론을 표시하면서 그의 위협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소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8.15를 계기로 반일투

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할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남조선강성미제침략군의 철수와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구축책동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단죄는 호전광들의 전쟁연습을 반대하는 투쟁과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려나갈것을 결의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부산통일련대를 비롯하여 남조선의 많은 통일운동단체들이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의 방편이자 민족을 단결하고 우리 민족끼리 손을 맞잡고 나아가달라 6.15공통선언은 자주통일실현으로 꽃피게 될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필승의 심신을 안고 통일애국투쟁을 힘차게 벌릴것을 피력하였다.

이 단죄물결이 아니다. 로동운동단체, 종교단체성원들, 대학성원들 비롯한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고 있다. 호전광들의 길을 뜻조각이 걸어야 할것을 표명하고있다.

단죄는 총회에서 최근 남조선당국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바라는 분위기를 표명하며 미국과 협력하여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데 대해 단죄하라는 외세의 군사협력강화가 조선반도평화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계속하여 단죄는 일련의 제부침화에도 우리를 급할수 없다고 결론을 표시하면서 그의 위협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소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8.15를 계기로 반일투

## 남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북침합동군사연습

미국이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발판으로 감행해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방해하고있는 지금 그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반발이 거세어지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을 난란을 조성하고있는 호전광들을 준렬히 단죄할것을 호소하고있다. 호전광들의 길을 뜻조각이 걸어야 할것을 표명하고있다.

남조선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우리 겨레 하나같이 운동분부가 열망하는 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단죄는 총회에서 최근 남조선당국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바라는 분위기를 표명하며 미국과 협력하여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데 대해 단죄하라는 외세의 군사협력강화가 조선반도평화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계속하여 단죄는 일련의 제부침화에도 우리를 급할수 없다고 결론을 표시하면서 그의 위협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소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8.15를 계기로 반일투

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할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남조선강성미제침략군의 철수와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구축책동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단죄는 호전광들의 전쟁연습을 반대하는 투쟁과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려나갈것을 결의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부산통일련대를 비롯하여 남조선의 많은 통일운동단체들이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의 방편이자 민족을 단결하고 우리 민족끼리 손을 맞잡고 나아가달라 6.15공통선언은 자주통일실현으로 꽃피게 될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필승의 심신을 안고 통일애국투쟁을 힘차게 벌릴것을 피력하였다.

이 단죄물결이 아니다. 로동운동단체, 종교단체성원들, 대학성원들 비롯한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고 있다. 호전광들의 길을 뜻조각이 걸어야 할것을 표명하고있다.

단죄는 총회에서 최근 남조선당국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바라는 분위기를 표명하며 미국과 협력하여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데 대해 단죄하라는 외세의 군사협력강화가 조선반도평화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계속하여 단죄는 일련의 제부침화에도 우리를 급할수 없다고 결론을 표시하면서 그의 위협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소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8.15를 계기로 반일투

## 남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북침합동군사연습

미국이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발판으로 감행해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방해하고있는 지금 그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반발이 거세어지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을 난란을 조성하고있는 호전광들을 준렬히 단죄할것을 호소하고있다. 호전광들의 길을 뜻조각이 걸어야 할것을 표명하고있다.

남조선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우리 겨레 하나같이 운동분부가 열망하는 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단죄는 총회에서 최근 남조선당국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바라는 분위기를 표명하며 미국과 협력하여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데 대해 단죄하라는 외세의 군사협력강화가 조선반도평화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계속하여 단죄는 일련의 제부침화에도 우리를 급할수 없다고 결론을 표시하면서 그의 위협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소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8.15를 계기로 반일투

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할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남조선강성미제침략군의 철수와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구축책동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단죄는 호전광들의 전쟁연습을 반대하는 투쟁과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려나갈것을 결의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부산통일련대를 비롯하여 남조선의 많은 통일운동단체들이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의 방편이자 민족을 단결하고 우리 민족끼리 손을 맞잡고 나아가달라 6.15공통선언은 자주통일실현으로 꽃피게 될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필승의 심신을 안고 통일애국투쟁을 힘차게 벌릴것을 피력하였다.

이 단죄물결이 아니다. 로동운동단체, 종교단체성원들, 대학성원들 비롯한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고 있다. 호전광들의 길을 뜻조각이 걸어야 할것을 표명하고있다.

단죄는 총회에서 최근 남조선당국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바라는 분위기를 표명하며 미국과 협력하여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데 대해 단죄하라는 외세의 군사협력강화가 조선반도평화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계속하여 단죄는 일련의 제부침화에도 우리를 급할수 없다고 결론을 표시하면서 그의 위협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소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8.15를 계기로 반일투

##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을 규탄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13일 경기도 평택역앞에서 침략적인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는 이지스유도미사일구축함 《커티스 윌버》호와 이지스구축함 《리틀》호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평택항에 기여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북침전쟁책동을 노린 《맞출형억제전략》을 처음 적용하는 군사훈련으로서 평택항에 입항한 이즈소우드미사일구축함은 평택항에 입항한것을 명증해주고있다고 밝혔다.

조선시대에 미국이 구축함들이 군사연습을 벌리고 이에 남조선군이 동조하는것은 조선반도를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내달리는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투입된 미해군을 위해 그 무슨 《화형》행사를 벌리려고 한것은 미군을 위해 민중의 혈세를 썩여버리는 매국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확대되는 의료민영화 반대투쟁

남조선에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투쟁이 확대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끌고있다. 《오마니뉴스》와 《참세상》을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의사협회성원들이 오는 24일부터 남조선전역에서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할것을 발표하였다.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남조선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교단련합회와 민주노동, 참여연대 등 2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본부로 결성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의 의료정책은 민중에게 있어서 제앙이라고 혹독하면서 그것은 치료하는 인성시키고 의료봉사의 질을 떨어뜨려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그들은 앞으로 100만명운동과 《의료민영화저지법》 제정 등으로 의료민영화정책

## 의료민영화 반대투쟁

을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갈것이라고 결의하였다. 《민중의 힘》 공동대표는 사람들의 건강은 돈으로 바꿀수 없는 매우 중요한것이지만 현 《정권》은 사람들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당국이 반인민적인 의료정책을 계속 강행한다면 그것은 《정권》의 무덤

을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갈것이라고 결의하였다. 《민중의 힘》 공동대표는 사람들의 건강은 돈으로 바꿀수 없는 매우 중요한것이지만 현 《정권》은 사람들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당국이 반인민적인 의료정책을 계속 강행한다면 그것은 《정권》의 무덤

을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갈것이라고 결의하였다. 《민중의 힘》 공동대표는 사람들의 건강은 돈으로 바꿀수 없는 매우 중요한것이지만 현 《정권》은 사람들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당

